

기고

강진 군민의 안전을 위한 약속
주택용소방시설 선물하기

전라남도의 보물 같은 고장, 우리 강진은 예로부터 이웃 간의 정이 넘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각별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화재 앞에서는 그 소중한 이웃과 가족의 평화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강진소방서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소중한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집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 장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설치하는 일입니다.

약속 1. 우리 집의 소화기, '소방차 한 대'의 힘을 믿으세요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서 불길을 잡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 내에 사용하는 소화기 한 대는 실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거실이나 현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대형 재난을 막는 든든한 보탬이 됩니다.

약속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잠든 사이에도 당신을 지키십시오
화재 피해가 가장 커지는 때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하여 날카로운 경보음으로 위험을 알립니다. 별도의 전기 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신속한 대피를 도와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강진의 안전, 선물로 전하는 진심
강진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소방서와 거리가 먼 농어촌 마을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명절이나 기념일에 건강식품이나 생필품도 좋지만, 부모님과 이웃의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을 담아 소화기와 감지기를 선물해 보십시오.

"당신의 안전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이 담긴 선물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안전한 내일을 위한 동행

강진소방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예방의 완성은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집의 소화기를 점검하고, 이웃집에 감지기를 선물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화재 없는 안전한 강진'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전 약속에 동참할 때, 강진의 미래는 더욱 밝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전'을 선물하십시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고영재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찬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안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4700원

불씨는 잠깐, 피해는 평생이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고, 산과 들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등산과 농번기 준비 등 야외 활동이 점차 늘어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와 동시에 산불 위험 또한 가장 높아지는 때이기도 하다.

특히 2월부터 4월까지의 낮은 습도와 강한 바람이 반복되고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줄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제 산불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상시적 재난이 되었다.

산불은 단순히 나무 몇 그루가 타는 사고가 아니다. 한 번 발생하면 수십 년간 가꾸는 산림 생태계를 순식간에 파괴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지역 공동체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

우리 함평군 역시 2023년 4월, 신광·대동면 일원에서 군 역사상 가장 큰 대형 산불을 겪으며 641ha가 넘는 소중한 산림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산림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만, 다시 울창한 숲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산불피해지 복구와 산

독/자/기/고

강하춘

함평군 부군수



봄철 산불,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답이다

림 회복을 위해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림 사업과 함께 지역 안전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도 이러한 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군민과 공직자, 산불진화대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한 결과, 지금까지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도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 없이 안정적인 산불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산불 발생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의 상시 운영 ▲조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반복 훈련 ▲산림 인접 지역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정책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아

울러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다.

산불 제로화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 사항은 분명하다. 첫째,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논·밭두렁이나 주택 주변에서의 쓰레기·영농부산물 소각은 가장 빈번한 산불 원인 중 하나다. 특히 봄철에는 마른 풀과 낙엽이 많아 불길 이 순식간에 확산된다.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원상복구 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

지속·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2026. 2. 1.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었다.

둘째,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는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라이터, 버너, 담배 등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에 오르기 전 소지품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길 바란다.

현행 법령에 따라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이나 취사는 엄격히 금지되고 인화물질 소지 자체도 제한된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각심과 실천이 모일 때 비로소 산불 없는 안전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인력을 확대하고, 순찰과 예방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

소중한 산림은 우리 세대만의 자산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공동의 유산이다. 작은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산불 예방의 주체가 되어 주길 당부드린다.

불조심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다.

지금 이 순간의 관심과 실천이 우리의 숲을 지키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독자투고

주택화재 예방, 작은 준비가 생명을 지킵니다

최근 잦은 한파로 전기난로, 전기장판, 기름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거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 머물러야 할지 대피해야 할지, 또는 초기 진화를 시도해야 할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지만, 소방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이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재 발생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사용이 간편하면서도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소화기는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재 초기 단계에서 경보음을 통해 위험을 알려주고,

소화기를 활용해 신속히 대응한다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난방용 전열기구 사용 중 발생한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화재는 전

체 화재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매우 크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는 결코 거창한 설비가 아니지만, 화재 발생 시 가장 먼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주변 가족과 이웃, 지인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모든 가정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담양소방서 교서119안전센터 홍왕석

오늘의 운세 2026년 3월 4일 수요일 (음력 1월 16일)

48년생 등 떠밀린 자리 꽃망울이 되어간다. 60년생 급개 오는 유혹의심부터 해보자. 72년생 불인함과 초조 시간이 가져간다. 84년생 약속해지 기위험과 과정을 거쳐보자. 96년생 면허는 준비로 예쁨을 받아내자.	49년생 정해진 목표 앞만 보고 달려가자. 61년생 출중한 가르침 교과서 가 되어야 한다. 73년생 서무로 의지해야 더 멀리 갈 수 있다. 85년생 힘겨웠던 기다림의 끝이 보여진다. 97년생 환경과 반가움 재촉 길을 걸어보자.	50년생 안색의 숨겨진 비탄을 받아내자. 62년생 오고 가는 덕담분위기가 혼 혼하다. 74년생 쓴소리 미운 소리 귀에 담아두자. 86년생 세상이라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98년생 들었던 사이와 화해를 서두르자.
51년생 깐깐한 감동의 눈물까지 보여진다. 63년생 책임 없는 약속 신뢰를 잃어야 한다. 75년생 편견을 지어내야 사랑이 보여진다. 87년생 어렵다 반대들은 척만 척해보자. 99년생 얼굴 기특 후회한 미소가 그려진다.	52년생 급하다 서두르면 배가 산으로 간다. 64년생 꽃보다 저금통장 현 실과 타협하자. 76년생 기술도 정성도 백경이 되어간다. 88년생 따뜻한 위로에 기운을 다시 하자. 00년생의 무이자 책임 막내를 벗어내자.	53년생 좋다 하는 허락만세가 불러진다. 65년생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을 향해가자. 77년생 꿈보다 해몽 공경으로 맞서보자. 89년생 경직하올린 담담함을 기대해보자. 01년생 심부름을 해도 근사하게 해야 한다.
54년생 비위 맞추는 거래 담연히 해야 한다. 66년생 고인은 짧게 단순함을 가져보자. 78년생 행복해지고 싶은 재인을 들여보자. 90년생 위에서 아래로 자극히 겸손하자. 02년생 뒤에서 보는 흥천리까지 퍼져간다.	55년생 적지 않은 성과. 곳곳이 든든해진다. 67년생 밝아진 미래 행운까지 따라준다. 79년생 언제나 그랬듯 초심을 지켜보자. 91년생 개일같은 충고 반성문을 써보자. 03년생 특별한 배려에 감사함을 가져보자.	56년생 알고 있는 내용도 비밀로 해야 한다. 68년생 부족하다 싶어도 욕심은 금물이다. 80년생 관하여는 허세 모양만 빼져간다. 92년생 한결 편해지는 도움을 받아보자. 04년생 여럿 중에 으뜸 반짝반짝 빛나간다.
57년생 게으른 밤심 낙제점을 받아내자. 69년생 천국에 틀림없는 호사를 누리보자. 81년생 깊은 뜻이 담겨진 선물이 오고 간다. 93년생 복치고 경구치고 혼자 해보자. 05년생 농담인지 진담인지 선을 그어내자.	58년생 체면도 자존심도 땅으로 묻어내자. 70년생 건넌 짐분위기 연신 웃음이 난다. 82년생 부끄럽지 않거나 되짚어보아야 한다. 94년생 기쁨도 슬픔도 여럿이 함께 하자. 06년생 이름다운 실패 단단함이 더해진다.	59년생 적당한 양으로 흥정을 마쳐보자. 71년생 싸움을 피하는 감정이 되어보자. 83년생 보기에도 아까운 경사를 맞아야 한다. 95년생 장군에 명군 승부는 거창하게 하자. 07년생 더 넓은 세상으로 날 것임을 해보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 한국도로공사 | 500 경부고속도로 50주년